



Market Index / 13일

코스피지수 ▲ 3169.08 +33.49	코스닥지수 ▲ 1010.37 +9.72	유가(WTI, 달러) ▲ 59.70 +0.38	환율(원)	1USD 1144.89 100¥ 1044.56	살매 1105.51 팔매 1008.64	1EUR 1364.94 1CNY 180.28	살매 1311.68 팔매 163.12
---------------------------	--------------------------	------------------------------	-------	------------------------------	--------------------------	-----------------------------	-------------------------

# 코로나에 60세 이상 취업자만 늘었다

### 작년 1월 이후 도내 20~50대 취업자 모두 감소세 단기 공공일자리 효과에 60세 이상만 3000명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동안 제주지역 일자리 1만여개가 사라질만큼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에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층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월 근로시간 30시간의 단기성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층이 모두 취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노동현장에서 체감하는 취업난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3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말 기준 도내 취업자는 37만7000명으로, 제주에 코로나19 여파가 미치기 직전인 2020년 1월(38만9000명)에 비해 1만2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 수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월 4만4000명에서 올해 2월 4만명으로 4000명 감소했고, 같은기간 30대는 7만1000명에서 6만8000명으로 줄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은 40대는 9만6000명에서 9만3000명으로, 50대는 9만3000명에서 8만70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은 인구이동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제주에선 20대 인구

1178명이 순유출됐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아 순유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자리가 젊은층의 탈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지난해 1월 8만1000명이던 60세 이상 취업자는 올 2월에는 8만4000명으로 3000명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1만800명이다. 공공시설 봉사나 학교 환경개선 분야에서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익형 일자리에 9270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형 880명, 시장형 450명, 취업알선형에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만1400명보다는 참여자가 소폭 감소했지만 해마다 1만명이 넘는 노인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며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0년 4만6000명에서 2015년 5만

9000명, 2018년 6만8000명, 2019년 7만8000명, 2020년 8만3000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고령사회 속 노후준비가 부족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확대는 절실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고용하는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주7~8시간 일하는 노인들이 모두 같은 취업자로 분류되면서 노동현장에서 체감도와 취업자 통계가 동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귀한 몸’된 사과·배** 지난해 악천후의 여파로 국내 사과, 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농업관측본부는 최근 내놓은 ‘과일관측 4월호’에서 지난해 긴 장마 등의 여파로 사과·배 등의 출하량이 줄면서 주요 과일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과일 판매대 모습.

## 제주기능경기대회 기능인 93명 배출 산업용드론제어 부문서 최연소 입상자 나와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에서 93명의 우수 기능인을 배출하고 폐막했다.

지난 5~9일 닷새동안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 도내 5개 경기장에서 치러진 기능경기대회에는 27개 직종에 193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2020년 전국대회를 석권한 통신망분배기술 직종에 참가한 조민희양 등 27명이 금메달을 수상했다. 냉동기술 직종의 김동현군을 비롯한 27명이 은메달, 요리 직종의 이상현씨를 비롯한 24명이 동메달, 산업용드론제어 직종에 참가한 이진영·홍경민군을 비롯한 15명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조민희양은 지난해 전국대회 통신망분배기술 직종에서 동

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오는 10월 열린 전국대회 메달을 노린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올해 정식종목으로 추가된 산업용드론제어 직종에서 장려상을 받은 이진영(15)·홍경민(17)군이 이번 대회 최연소 입상자가 됐다.

이번 대회 입상(1, 2, 3위) 선수에게는 각각 메달과 상장, 상금(금 70만원, 은 50만원, 동 30만원)이 주어진다. 60점이 넘는 선수 중 입상자를 제외한 최고점자에게 장려상 상장과 상금 10만원이 전달한다.

또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린 예정인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제주 대표로 참가해 전국 기능인들과 기량을 겨룰 기회를 갖는다.

##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무이자 의료·재해 대출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노란우산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롭게 시행중인 대출상품이다. 기존에는 노란우산 가입자가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만을 신청할 수 있었

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일정 요건 충족시 가입자가 낸 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재해·의료대출 요건 충족시 대출전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지난해 공영관광지 방문객 ‘반토막’

### 성산일출봉 최다 감소... 자연휴양림은 증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공영관광지의 방문객 수가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8곳 공영관광지의 방문객은 690만3564명으로, 전년인 2019년 1389만3845명보다 50% 이상 감소했다. 이중 내국인 방문객이 2019

년 1286만6681명에서 680만130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외국인 방문객은 102만7164명에서 10만2263명으로 90% 가량 줄었다.

특히 2019년(방문객 170만7903명) 도내 공영관광지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던 성산일출봉은 지난해 56만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67% 가량 감소했다. 이어 주상절리대는 120만9852명에서 53만6986명으로 55%, 천지연폭포는 132만3527명에서 71만5436명으로 45%, 우도해양도립공원은 160만3689명에서 109만3562명으로 31% 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도내 공영관광지의 방문객 감소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5인 이상 소모임 집합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서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이 사라졌고,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도내 주요 공영관광지가 일정기간 폐쇄되면서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도내 휴양림 등 자연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오름자연휴양림은 지난해 16만4287명이 방문해 전년 9만9302명 대비 65.4% 증가했고, 서귀포자연휴양림은 12만9316명에서 16만264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제주양돈농협 등 4개업체 18일 드라이브스루 판매

제주양돈농협이 ‘포스트코로나 축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를 이달 18일(오전 11~오후 4시) 제주포크테마파크(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19)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축산물 소비 둔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양돈농협을 비롯해 제주돈육수출센

터, 한라씨에프엔, (주)삼양제주우유 등 4개 업체가 참여한다.

돼지고기 구이용 세트(삼겹살·목살·앞다리로 구성된 3kg에 2만7000원), 돼지고기 가공품 세트(햄세트 1만원, 3만원), 닭고기 조리용 세트(3kg에 1만5000원), 제주담은우유(190ml 24개에 1만원), 포짜펠라 치즈(300g짜리 2개에 1만3000원) 등 시중보다 최대 50% 안팎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돼지고기 세트는 차량 탑승 1인당 1세트만 판매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

# 하하농법 4월의 농사메모

- 키 위** ○ 꽃비료 21-17-17 복비 4포 시비 (1,000평 기준)  
○ 히토락F(5ℓ) 50~100말 희석 **500평** 관주 → 자방을 크게
- 만감류** ○꽃이 성숙개비 ○꽃이 콩알만할때 7일 간격 2회 해피한  
그린+글루칼(포도당 칼슘)엽면시비 → 당 상승 및 자방 크게
- 마늘** ○ 쫄 나올때 ○ 쫄 꺾고나서 ○ 수확 15일전 히토락  
100말에 7ℓ+천연가리 엽면시비(농약혼용가능)→비대효과  
※ 수확 15일전에 꼭 살충제를 혼용할것
- 더덕** ○ 밀거름(기비)해찬골드 유박 1,000평기준 100포,  
용성인비 20포, 쌀맛나 35~40포 고토석회 20~30포  
※ 이노페스를 보충해 주면 더욱 좋다(미량요소 및 히토류 공급효과)  
○ 2년차 더덕은 영양생장을 위해 아미노산 액비(닭똥로 가수  
분해하여 만든 동물성 아미노산)1ℓ에 50말 엽면시비(농약혼용가능)

“**하하농법**으로 농민들이 하하웃는 그날까지”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